

어머니에 대한 표상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epresentation of Mother and
Social Competence : Representation of Peers as a Mediating Variable*

정명진(Myung Jin Jung)¹⁾

김광웅(Kwang Woong Kim)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representation of peers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representation of mother and social competence. Subjects were 547 elementary school children. Baron and Kenny's model (1986) was used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s. Results were (1)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presentation of mother by gender. Girls had more positive representation of peers than boys. (2) Girls' representation of mother had more influence on social competence than boys'. (3) Girls' representation of peers had more influence on social competence than boys'. (4) Representation of peers mediated relations between representation of mother and social competence. Girls' representation of peers had more mediating effect than boys'.

Key Words : 어머니 표상(representation of mother), 또래 표상(representation of peers), 사회적 능력 (social competence).

I. 서 론

아동은 출생 초기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기초로
학령기에 이르면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발달

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된다. 관계에 대한
아동의 표상은 개인적인 상호작용 양식을 예견
가능케 하며(김영아, 2000) 아동의 사회성 발달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¹⁾ 한국아동발달심리센터 연구원

²⁾ 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yung Jin Jung, Hankook Children's Developmental Psychology Center, CS Tower 704,
Sungsan-Dong 56-1, Mapo-Gu, Seoul, Korea
E-mail : mmjj3584@naver.com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타인에 대한 표상이 대인관계의 결과이면서 또 다른 관계의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어머니표상과 또래표상은 현재와 미래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표상은 애착이론, 대상관계이론 등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아동의 표상을 사회적 행동과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나유미, 2001). 이 이론들의 관점은 어머니와 가족에 의해 형성된 표상이 심리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형성되면서 아동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김병석, 1999). 즉,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민감하며 적절한 통제를 할 경우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2002; 손승희, 2002; Domitrovich, 1998). 이는 아동의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능력에 어머니 표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나유미, 2001; 이기영·고윤희·최성열, 2004; 이영환·이진숙, 2001)에 의해서도 지지된 바가 있다.

또 어머니 표상은 개인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적용되어 어머니의 행동과 또래의 행동을 연계시키는 잠재적인 기제로 고려될 수 있다(정지나, 2006; Ainsworth, 1989; Bowlby, 1973). 또래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하는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은 반면, 또래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하는 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나유미, 2001; Cassidy, Kirsh, Scolton, & Parke, 1996; Rabiner, Keane, & Mackinnon-Lewis, 1993) 어머니 표상뿐 아니라 또래 표상이 또래 유능성을 이해하는 기제가 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표상은 어머니 표상을 넘어서 더 넓은 사회적 세계로 확

대해 나갈 때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정지나, 2006).

이와 같이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고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또래 표상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 검증한 논문은 없다. 즉 어머니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어머니 표상이 이후의 또래 경험과 연계되어 사회적 유능성을 유도하는 과정은 애착이론에 의해 개념적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 또래 표상의 매개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어머니와 또래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있어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즉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표상과 또래표상의 영향력을 명확히 규명하고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표상이 또래에 대한 표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근래에 대인 표상과 사회 정서적 어려움간의 관계를 나름대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을 독립적으로 본 연구가 대부분이며(이기영, 고윤희, 최성열, 2004; 이영환, 이진숙, 2001), 또한 유아나 아동의 내적 표상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박용임, 1998; 이진숙, 2001)는 있으나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가 사회적 유능성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중기 아동기에 있어서의 표상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의 초기에 형성된 내적 표상이 심리 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사회적 능

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의 이론적 관점이 중기 아동기까지도 이어지는 지에 대한 중요한 실증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애착표상의 차이에 관해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보고(LaFreniere & Sroufe, 1985; Park & Waters, 1989)와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안정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홍계옥, 1995)가 있는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Londerville & Main, 1981; Turner 1991)들이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성차를 보고한 연구(노명희, 1995; 도현심, 1994)와 표상에 있어서의 성차를 보고한 연구(민성혜·신혜원·이영, 2004; 송혜영·최보가, 2002)를 바탕으로 남 녀 따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곳을 임의 표집 하여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령기 아동은 또래관계가 중심적인 사회적 관계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적응과 부적응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어(김경연·김귀연, 2005) 유아기 보다 학령기 동안에 양육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을 제시해 준다는(Fabes, Eisenberg, Karbon, Bernzweig, Speer & Carlo, 1994)는 연구와 함께 중기 아동기가 인지적으로 안정되면서 내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라는(김영아, 2000)연구를 토대로 4, 5, 6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8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무응답과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547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 표상 척도

Rudolph, Hammen 및 Burge(1995)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대인도식 질문지-어머니용(Children's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mother)을 김영아(2000)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에게 그들의 어머니와의 전형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제시하고, 그들의 어머니가 반응하리라고 가장 기대되는 반응양식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어머니의 반응양식은 (1)강압적이고 비판적이며 적대적인(hostile) (2)무관심하고 회피적이며 철회된(indifferent) (3)보살피며 감싸주는(caring)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응 유형은 각각 1, 2, 3점의 점수를 받게 되어 총점 15점에서 4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9로 나타났다.

2) 또래 표상 척도

Rudolph 등(1992)의 아동용 대인도식 질문지-또래용(Children's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peer)으로 자신에 대한 또래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였다. 가상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제시하고 또래가 반응하리라고 가장 기대되는 반응양식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또래의 반응양식도 (1)강압적이고 비판적이며 적대적인(hostile) (2)무관심하고 회피적이며 철회된(indifferent) (3)보살피며 감싸주는(caring)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응 유형은 각각 1, 2, 3점의 점수를 받게 되어 총점 15점에서 4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표 1>에서 아동용 대인 도식 질문지-어머니용과 또래용에 대한 질문과 반응, 그에 따른 유형을 예시하였다.

3) 사회적 능력 척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금옥(199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사회적 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1=거의 안 그렇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별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 척도의 총점수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 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과 인천에 위치한 초등학교 1곳의 4, 5, 6학년 각 9개 반의 아동들에게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질문지의 내용과 응답방법에 대해 설명

<표 1> 아동용 대인 도식 질문지-어머니용과 또래용 예시

| 질 문 | 반 응 | 반응 유형 |
|---|--------------------------------------|-------|
| 어머니용 | | |
| 어느 날 아침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침을 차리기로 했다. 그런데, 빵을 굽다가 잘못해서 빵이 좀 타버렸다면, 엄마는 어떻게 하십니까? |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빵을 다 버렸다고 짜증을 내실 것이다. | 적대적인 |
| | 내가 구운 빵은 그냥 놔두고, 아침 식사를 새로 준비하실 것이다. | 무관심한 |
| | 타버린 빵을 다 드시고, 맛있다고 하실 것이다. | 보살피는 |
| 또래용 | | |
| 친구들이랑 공을 차며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나한테 공을 차 보냈다. 공을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놓쳐버렸다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 나를 비웃으며 너 때문에 질 거라고 말할 것이다. | 적대적인 |
| |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릴 것이다. | 무관심한 |
| | 괜찮다고 하며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보살피는 |

하고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명을 들은 교사가 아동에게 질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다음날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의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하였고, 어머니 표상, 또래 표상,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의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의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어머니 표상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된 또래 표상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 표상을 종속변인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

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차이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차이

| 변인 | 성별 | M(SD) | t |
|--------|----|-----------|----------|
| 어머니 표상 | 남 | 2.58(.30) | -.31 |
| | 여 | 2.59(.30) | |
| 또래 표상 | 남 | 2.66(.28) | -3.68*** |
| | 여 | 2.75(.27) | |

*** $p < .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표상의 경우, 남아의 평균은 2.58, 여아의 평균은 2.59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어서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표상의 경우, 남아의 평균은 2.66, 여아의 평균은 2.75로 유의한 차이($t = -3.68$, $p < .001$)를 나타내었다.

2.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

<표 3> 어머니 표상 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 변인 | 1 | 2 |
|----|--------|------|
| 1 | 1.00 | |
| 2 | .28*** | 1.00 |

*** $p < .001$

1. 어머니 표상 2. 사회적 능력

<표 4> 또래 표상 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 변인 | 1 | 2 |
|----|--------|------|
| 1 | 1.00 | |
| 2 | .49*** | 1.00 |

*** $p < .001$

1. 또래 표상 2. 사회적 능력

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3>, <표 4>와 같다.

어머니 표상은 $p < .001$ 수준에서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또래 표상은 $p < .001$ 수준에서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결과 또래 표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영향력과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표 5>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 성별 | 종속변인 | b | r ² | F |
|----|--------|--------|----------------|----------|
| 남 | 사회적 능력 | .45*** | .04 | 12.15*** |
| 여 | 사회적 능력 | .81*** | .12 | 37.58*** |

*** $p < .001$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남아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어머니 표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5, p < .001$). 여아의 경우도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81, p < .001$).

3.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 성별 | 종속변인 | b | r ² | F |
|----|--------|---------|----------------|-----------|
| 남 | 사회적 능력 | 1.03*** | .20 | 68.22*** |
| 여 | 사회적 능력 | 1.35*** | .27 | 105.05*** |

*** $p < .001$

<표 6>에서 보듯이 남아($b=1.03, p < .001$)와 여아($b=1.35, p < .001$) 모두에게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4.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여 남아, 여아 각각에게서 나타난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아의 경우 독립변인인 어머니 표상에서 매개변인인 또래 표상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

<표 7>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 검증

| 성별 | 단계 | 변인 | β | R^2 | F |
|----|------|-----------------------------------|----------------|-------|----------|
| 남 | 1 단계 | 어머니 표상 → 또래 표상 | .43*** | .19 | 60.17*** |
| | 2 단계 | 어머니 표상 → 사회적 능력 | .21*** | .04 | 12.15*** |
| | 3 단계 | 어머니 표상 → 사회적 능력 또래 표상 → 사회적 능력 | .02 .44*** | .21 | 34.04*** |
| 여 | 1 단계 | 어머니 표상 → 또래 표상 | .48*** | .23 | 83.66*** |
| | 2 단계 | 어머니 표상 → 사회적 능력 | .35*** | .12 | 37.58*** |
| | 3 단계 | 어머니 표상 → 사회적 능력 또래 표상 → 사회적 능력 | .12* .47*** | .29 | 55.35*** |

* $p < .05$ *** $p < .001$

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3, p < .001$), 어머니 표상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beta = .21, p < .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44, p < .001$), 어머니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보다($\beta = .21, p < .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02$). 그러므로 또래 표상은 어머니 표상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아의 경우 독립변인인 어머니 표상에서 매개변인인 또래 표상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8, p < .001$), 어머니 표상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beta = .35, p < .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47, p < .001$), 어머니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보다($\beta = .35, p < .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12, p < .05$). 그러므로 또래 표상은 어머니 표상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요인으로서 또래 표상의 역할을 알아보고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의 이론에 기초해서 어머니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 어머니 표상은 또래 표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로서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고 이들 연구문제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 표상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표상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 표상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어머니표상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는 연구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 표상의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Londerville 과 Main(1981)의 연구, Turner(1991)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범주별로 나누어 긍정적 표상의 차이를 검증했을 때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유영미와 이영(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연결시켜 생각할 때 유아기에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의 차이가 없는 것이 중기 아동기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유아에게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 안정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LaFreniere 와 Sroufe(1985)의 연구와 홍계옥(199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유아기에는 어머니 표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로 양분되나, 중기 아동기의 경우 본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유아기에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의 차이가 없는 것이 중기 아동기 까지 이어지는 결과의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여기서는 유아기의 어머니 표상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중기 아동기에 와서 어떻게 없어지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유아기에 어머니 표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는 부모는 아들과 딸에 대한 성정형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차별적 사회화 환경을 만들어주어 어머니

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온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권연희, 1996)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유아기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성숙함에 따라 점점 덜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Shaffer, 1994), 특히 유아시기를 지나면서 부모는 남아에게 더 자유를 준다는 연구(Berk, 1994)와 연관 지어 생각할 때, 남아의 경우 유아기에 부정적이었던 어머니 표상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중기 아동기에는 어머니 표상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4세와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많았고, 여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표상이 적게 나타났다는 유영미 등(2001)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가 또래 표상이 더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표상에 관한 성차 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나유미, 2000; Miller, Danaher, & Forbes, 1986)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성에 따라 또래에 관한 태도를 다르게 교육하여 남아에게는 남자다운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래에게 다소 공격성을 허용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되고(김문정, 2003), 또 남아의 경우 성취지향적인 면이 강조되고 자기주장에 대한 허용정도가 큰 반면, 여아는 남아보다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고 감정이입이 격려되는 등 관계지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Maccoby, 1990) 여아의 또래 관계가 남아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친밀하게 형성되어 여아의 또래 표상이 남아에 비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차이는 연령의 변화와 함께 발달되는 과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표상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볼 때 어머니는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화 환경으로써 아동은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 등을 획득한다고 하겠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을 토대로 타인과 자신의 욕구에 대해 배우고 정서를 조절하며(Eisenberg & Fabes, 1994; Garner, Jones, & Miner, 1994)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성, 자기신뢰, 안정된 애착, 그리고 긍정적인 표상을 촉진시킨다(Davies & Cumming, 1994). 또한 어머니의 비밀관적이고 양가적인 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으로 이어지며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Solomonica-Levi, Yirmiya, Erel, Samet, & Oppenheim, 2001). 이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어머니 표상이 형성될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나유미, 2000).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는 아동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 아동이 보이게 될 사회적 행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Crick & Dodge, 1994). 즉 또래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하는 아동은 또래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가 높고 긍정적이고 유능한 상호작용을 하고, 또래에 대한 부정

적인 표상을 하는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낮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아 여아 모두에서 또래 표상이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지각이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경험은 또래 표상에도 영향을 미쳐 또래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표상이 또래 표상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일반화된 표상의 이론적 개념을 지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상을 개인이 특정 사회적 상황을 접할 때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 과정으로 설명한(Crick & Dodge, 1994) 사회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새로운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아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은 과거 경험을 기억 속에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곧 사회적 세계에 대한 표상이 되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한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거부를 당해온 아동은 새로운 다른 또래의 중립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으로 반응하기 쉽다(Burks, Dodge, Price, & Laird, 1999). 반면 따뜻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사회적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친사회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즉 긍정적인 어머니 표상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며 또래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가 높

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Domitrovich & Bierman, 2001).

그런데 또래 표상은 어머니 양육에서 비롯된 어머니 표상의 영향력에 현실의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해져 형성된다(김영아, 2000). 즉 어머니표상의 바탕위에서 발달시킨 또래표상은 대인관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외부현실에 잘 조율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겠다. 또래집단이나 이성 관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가져오는 청소년기의 전단계로서 중기 아동기를 생각할 때 또래 표상의 인지적 평가를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다시 한 번 관계의 기본이 되는 어머니 표상의 중요성과 아울러, 어머니 표상은 또래 표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기 아동기에 아동들의 긍정적 또래 표상을 발달시키거나 부정적 또래 표상을 증재할 수 있는 인지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의 일부 초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표집오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대한민국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둘째,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국한함으로써 발달적 시기에 따른 표상의 일관성이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표상이 어떠한 양상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나 연구대상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집단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가 어머니 표상이 또래 표상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를 밝힌 것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또래 표상을 위한 개입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 정도를 밝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또래표상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여 애착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여 그 과정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점과 중기 아동기의 표상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표상을 포함시킨 인지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 권연희(1996).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권연희 (2002).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연·김귀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 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석(1999). 관계문제로서의 정서행동장애 :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34(2), 257-275.
- 김영아(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 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유미(2000). 또래에 대한 아동의 내적 표상모델과 또래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1(4), 143-158.

- 나유미(2001).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연계 : 인지 표상 모델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22(1), 83-96.
-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1994). 유치원 아동 및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 부모의 관심, 보호성, 아동의 성 및 출생범주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성혜 · 신혜원 · 이영(200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 발달. *아동학회지*, 25(6), 153-170.
-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손승희(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혜영 · 최보가(2002). 또래갈등상황에서 아동의 책략, 목표 및 또래 수용. *대한가정학회지*, 40(11), 11-22.
- 유영미 · 이영(2001).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 63-74.
- 이기영 · 고윤희 · 최성열(2004). 유아의 애착표상과 또래관계. *아동교육*, 13(2), 303-313.
- 이영환 · 이진숙(2001).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표상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3, 69-91.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나(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 유아의 내적 표상의 매개 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k, L. E. (1994). *Child Development*(3rd ed.). Boston : Allyn & Bacon.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Burks, V., Dodge, K., Price, J., & Laird, R. (1999). Internal representational models of peers :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blematic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35, 802-810.
- Cassidy, J., Kirsh, S., Scolton, K. L., & Parke, R. D. (1996). Attachment and representations of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892-904.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avies, P. T., & Cumming,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omitrovich, C. E. (1998).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 The mediating role of child perceptions of parents and pe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Domitrovich, C. E., & Bierman, K. L. (2001).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 Multiple Pathways of Influ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7, 235-26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 Relations with mot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4-55.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 : Emotions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LaFreniere, P. J., & Sroufe,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 Interco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Londerville, S., & Main, M. (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43-548.
- Park, K. A., & Waters, E. (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281.
- Rabiner, D. L., Keane, S. P., & MacKinnon-Lewis, C. (1993). Children's beliefs about familiar and unfamiliar peers in relation to their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36-243.
- Rudolph, K. D., Hammen, C., & Burge, D. (199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lf, family, and peers in school-aged children Links with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6*, 1385-1402.
- Shaffer, D. R. (1994).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3rd ed.).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 Solomonica-Levi, D., Yirmiya, N., Erel, O., Samet, I., & Oppenheim, D. (2001). The associations among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5), 673-690.
- Tuner, P. J. (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2009년 8월 29일 투고, 2009년 10월 20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